

2012 신년사



“변화하지 않는 자, 긍정의 힘이 없는 자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희망의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입니다.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을 뜻하는 흑이 더해져 흑룡의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길한 해라 합니다. 새해는 흑룡처럼 여러모두가 힘찬 승천의 기운으로 더욱 발전하고, 가정에도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경영위기의 힘든 시련에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면서 제2 도약의 토대를 확고히 다진 매우 뜻깊고 값진 한 해였습니다.

전라선을 비롯한 신분당선, 기흥~죽전 복선전철 개통과 원주~제천 기공식 등 5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고, 한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선정, 동반성장 최우수기관 선정, 지속가능보고서상 수상,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계획·설계·시공단계에 있는 모든 사업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가예산 수천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재무관리로 이자비용도 아낀 획기적인 경영혁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소조직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을 통해 공단 제2차립 기반도 확고히 다졌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은 2020 뉴 비전 선포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 미흡한 점도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열정도 보여 주었습니다.

새해에는 희망의 초석을 더욱 다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공단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 정부는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경영효율을 높이는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외부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우리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

일명경인(一鳴驚人)! ‘한 번 시작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다진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웅비하는 공단’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철도망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국민들에게 금년에 개통하기로 약속한 동순천~광양 등 5개 일반철도사업과 여수 EXPO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와 수인선 오이도~송도 4개 광역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보다 빠르게 더욱 증진시키고,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 원주~강릉과 공항철도 연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적정 설계와 시설 최적화로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갑시다.

둘째, 글로벌 철도기술력 제고와 품질안전 확보, 무재해 안전시공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철도기술력은 선진국대비 75%에 불과한 실정이고, 우리 공단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와 분기기는 콘크리트 궤도에서의 300km/h 검증이 세계 최초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철도기술인으로서 반성하고 업체에만 의존했던 관행을 버리고 우리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외부 위탁영역과 업무도 과감히 탈피하여 자체연구와 현장 직접감독 및 설계를 확대하고 사내대학원을 통한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자재 국산화, 철도시험선로 본격 착수 등 철도기술력 전반을 높여 나갑시다.

지난해 방천·달성·식장산 노령터널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공단의 전문성과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던 사실을 잊지 말고, 적시에 구축한 품질·안전·시공관리시스템 대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갑시다.

셋째, 국유철도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자산개발과 해외사업 진출 등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공단부채를 감소시키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광명역 등 추진 중인 5개 복합 환승시설과 수서역세권 등 대규모 역세권개발 사업도 문제를 신중하면서도 조속히 시정하면서 추진하고, 오만, 카타르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갑시다.

끝으로, 공생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을 만들어 갑시다.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우리공단 사업에서는 받을 못 붙이게 하는 등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공단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혁신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창조적 변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도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단이 보다 조속히 투자비를 회수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구조개혁을 더욱 완성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철도를 적절한 운임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사랑받는 철도를 만드는데 우리 공단이 앞장서 나갑시다.

둘째로, 임직원 상호간에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면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갑시다.

조직 구성원 간에 대화가 부족하고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나 조직이라도 성과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은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을 아끼고, 직원들이 맡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하는 직원은 칭찬하고 더욱 잘하게 하여 스타를 만듭니다. 모든직원들에 항상 칭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의 귀재 책임지는 모든직원을 항상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며, 잘못하는 직원은 빨리 다른 일을 찾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미래는 인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검토는 치밀하고 깊게 이행은 신속하고 빠르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Think deep, Work speedy!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심사숙고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되, 실행은 빠르게 하는 스피드 경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갑시다. 현재 대부분 임직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쏟고 더욱 완벽함을 추구하는 디테일함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단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열정과 도전, 위기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으므로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고 깨끗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하라’ 는 말을 실천한다면 우리 공단은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기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 긍정의 힘이 없는 자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성공한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개개인은 물론 우리공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새해 우리모두 다 함께 공단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임진년 새해에는 우리의 희망으로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성취하며 보람을 느끼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임진년 도시무식을 갖고, "흑룡과 같이 하늘 높이 용솟음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임원들과 함께 지난 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분향 참배하였다.